



K-미용 국제 성장, 지식재산처가 함께합니다

- 화장품 전문 기업 한국콜마(주)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3.(수) 13시 국내 화장품 기업인 한국콜마(주)(서울시 서초구)를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2024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K-미용 성장세는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전문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인디 브랜드**의 차별화된 개념이 결합되어 발생한 상승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ODM(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facturing): 제조업체가 제품의 설계(디자인), 개발,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하고, 주문자는 완성된 제품에 자신의 브랜드(상표)만 부착하여 판매하는 생산 방식

** 인디 브랜드(Independent Brand): 설립자의 독립적인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대기업이나 주류 시장과 차별화된 개념을 유지하는 브랜드로서, 온라인 기반의 브랜드를 의미

이번 현장방문은 K-미용의 국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조업자개발생산 기업의 혁신기술과 지식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운 사항을 청취하여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콜마(주)는 세계 3대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으로 캡슐제형, 자외선 차단 기술, 친환경 바이오 소재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화장품 수입시장 1위 달성에 기여한 조선미녀, 티르티르 등 글로벌 인디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콜마(주)는 화장품 분야 특허 심사 기준 및 심사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 동향과 인공지능 기반 제품 개발 등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쟁점을 공유했다.

지식재산처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는 K-미용 국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산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화장품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현장 맞춤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K-미용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국내 화장품 특허출원 동향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화학생명심사국 유기화학심사과	책임자	과 장	좌승관 (042-481-5534)
		담당자	사무관	문영준 (042-481-5487)

<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 동향 >

(단위 : 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0~'24년 누계
내국인 출원 (비율, %)	2,643 (84.9)	2,753 (84.8)	2,689 (85.7)	2,664 (85.9)	2,832 (86.3)	13,581 (85.5)
외국인 출원 (비율, %)	469 (15.1)	495 (15.2)	450 (14.3)	437 (14.1)	449 (13.7)	2,300 (14.5)
출원 합계	3,112	3,248	3,139	3,101	3,281	15,881